

	일본 (도쿄)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5. 1.

CEPA Insight

- ① 2025년도 예산안 결정 115조 엔, 사회보장비 최대인 38조 엔
- ② 도쿄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4% 상승

① 2025년도 예산안 결정 115조 엔, 사회보장비 최대인 38조 엔

- 2024. 12. 27일 내각은 2025년도 예산안 승인
 - 이 예산안은 총 115조 5,415억 엔임. 세수는 약 78조 4,4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재정 자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의 규모는 약 28조 6,500억 엔으로 지난해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6조 8,000억엔 감소하지만, 총액의 약 25%는 국채에 의존
 - 인구 고령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 보장·방위비를 증액해, 전년도 대비 2년 만에 총액을 증액함. 2024년의 당초 예산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보다 낮았으며, 이는 높은 물가와 임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가 크게 줄은 결과였음. 2025년도 예산안 확정으로 3년 연속 110조 엔을 넘어섬.
 - 사회보장비는 고령화를 반영하여 2024년도의 37조 7,193억 엔에서 증액되어 38조 2,800억 엔으로 편성됨. 의료기관의 매월 자기부담금의 상향액을 설정하는 '고액 요양비 제도' 재검토나 약값의 인하 등의 세출 개혁에 대응하였으나,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액을 따라잡지는 못하였음.
 - 국채의 예상 금리가 2024년도 당초 예산의 1.9%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금리가 2%가 되면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임. 이는 지난 7월에 일본은행에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국방비가 8조 7,005억 엔으로 인상요인은 반격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입대 후 병영에 거주하는 자위대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급여체계 마련에 따른 것임.
- 세수는 사상 최대인 78조 4,4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시 추산한 73조 4,350억 엔을 웃도는 것임. 한편, 25일 내각이 승인한 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의 실질 성장률을 1.2%로 예상함.
- 2024년도에 시행된 정액세 인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회사는 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증가, 소비 촉진 및 수출로 인한 기업 이익 호조가 고려됨.
- 주요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23.3조 엔, 법인세가 19.2조 엔, 소비세가 약 24.9조 엔으로 예상됨.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3.2조 엔, 1.2조 엔, 0.6조 엔 증가함.
- 한편, 소득세 납부가 필요한 연간 소득 장벽 103만 엔을 20만 엔 상향하는 등 2025년도 세제 개혁에 따라 약 7,000억 엔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 세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 신규 국채 규모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30조엔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공공부채 의존도는 약 25%로 2024년도 당초 예산 보다 약 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대로 떨어진 것은 1998 회계연도 이후 27년 만에 처음임.
- 5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물가에 대응하고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신종코로나 등의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일반 예비비는 1조 엔이 계상되었음.

(출처 : 니혼게자이 2024. 12. 27. 0:05 발표 기사 및 10:12분 발표 기사 취합)

< 2025년도 예산안 개요 >

2025年度予算案の概要		일반회계금액 (115조 5,415억 엔)
一般会計総額 115兆5415億円		
歳 出		세출
社会保障関係費	38兆2778億円	사회보험관계비 (38조 2,778억 엔)
社会保障関係費以外	29兆9674	사회보장 이외 (29조 9,674억 엔)
地方交付税など	19兆784	지방교부세 등 (19조 784억 엔)
国債費	28兆2179	국채비 (28조 2,179억 엔)
歳 入		세입
税収	78兆4400	세수 (78조 4,400억 엔)
その他収入	8兆4525	그 외 수입 (8조 4,525억 엔)
新規国債	28兆6490	신규국채 (28조 6,490억 엔)

② 도쿄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4% 상승

- 총무성은 12월 27일 도쿄도(23개 “구”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중순 잠정치)가 108.6으로 전년 동월보다 2.4% 상승했다고 발표함. 두 달 연속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전기 및 가스 보조금이 10월 말에 종료되면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상승함.
- 수도권의 잠정치 전국을 대표하는 지표로 꼽히며, 조사 기관이 사전에 정리한 시장예측의 중간값은 2.5% 상승으로 나옴.

- 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했는데, 이는 11월의 7.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전기와 가스 가격은 각각 18.2%와 11.7%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함.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긴급지원'으로 시행되던 8월과 10월의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종료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남.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도 4.0% 상승하였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쌀 종류가 63.3% 상승했는데, 이는 1971년 비교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임. 금년도 쌀의 보급 후에도 치솟는 운송비로 인해 가격이 계속 높게 오르고 있음. 또 기상이변으로 계속 치솟고 있는 초콜릿(29.3% 상승)과 커피콩(19.9% 상승)의 가격도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을 보임.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각각 25.8%, 17.2% 올랐으며, 신선식품을 포함한 전체 수치는 109.7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함.
- 같은 날 발표된 2024년 평균 잠정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체 수치는 107.2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으로 전년도를 상회함.